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 그리다

4차산업 신기술 시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발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3일 법·기술·산업계 전문가 협업을 위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8년 제1기 협의체를 통한 기초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연결망(네트워크) 환경 전반을 조망하기 위한 제2기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2기 협의체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2기 협의체에서는 작년에 이은 연속과제인 인공지능·블록체인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인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저작권법' 전문가와 기술·산업 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신기술의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유통·보호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음과 같다.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승우경양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유인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포콘텐츠연구그룹장 ▲이대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저작권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근식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조영 환인공지능연구원 연구실장 ▲블록체인과 저작권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항배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정부 ▲공형식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유관기관 ▲이영록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홍수환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장 ▲백승혁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

/뉴스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순창군립도서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 성료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 '세계 책의 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순창군 어린이 시설 30곳의 어린이들 200여명을 초청했다. 행사에서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등이 아이들에게 책과 장미꽃을 선물했다.

아이들은 큰 행사장에서 꽃과 함께 받아 보는 책 선물로 신기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선생님과 또래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로 책이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됐다.

'세계 책의 날'은 유네스코가 책 읽기와 출판물 장려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세계적인 행사다. 이날은 스페인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했던 데서 유래했으며, 또 세계적인 작가인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순창군립도서관이 준비한 책 선물은 이날 행사 뿐 아니라 관내 어린이 기관 30곳에 200권씩 총 6000권의 책도 기증했다. 이 책은 (사)국군문화진흥원(이시창 최병현)이 순창군립도서관에 기증해준 6000권이다.

(사)국군문화진흥원 최병현 이사장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순창군립도서관에 2만 권이 넘는 책을 기증해 순창군의 문화발전과 독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순창군은 최병현 이사장의 업적과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수강생 대표 간담회를 23일 낮 12시 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과 소통의 장 마련... 고객중심 경영으로 만족도 향상 기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수강생 대표 간담회를 23일 낮 12시 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센터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향상으로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9년 2기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대표와 교육운영 담당자 외의 소통으로 고객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여성의 주체성 향상을 위한 신규교육 프로그램과 능동형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만족도조사를 통해 성실한 답변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수강생을 선정하여 무료수강권 증정 등 고객과의 자발적 소통 채널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수강생대표 간담회에서는 교육운영 규정 및 환불 절차 안내, 센터 주관·주최 행사 참석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수강생대표와 교육운영 담당자외의 질의응답으로

상호 이해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운애 센터장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이 곧 경쟁력이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주체성을 갖도록 계몽의식을 심어주려 끊임없이 도민과 소통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673) 또는 홈페이지(www.jwcc.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김희중 대주교, 스리랑카 위로 "극악한 반교회적 범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부활절인 21일 폭탄 테러로 충격에 빠진 스리랑카 콜롬보 대교구에 위로서한을 보냈다.

김 대주교는 '스리랑카 콜롬보대교구장 말콤 란지스 추기경님께'라는 제목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에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네곰보와 바티칼로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소식에 한국의 모든 신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천주교회의의 주교,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대표해 저는 이번 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폭력과 테러로 희생된 이들과 생존자 그리고 지금도 끔찍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무자비한 테러, 특히 콜롬보의 성 안토니오 성당과 네곰보의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폭탄 테러는 기쁨과 희망에 넘쳐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가톨릭 공동체들에 대한 극악하고 반교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비극적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와 스리랑카 국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이 상황을 수습하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준비하신 주님께서 생존자와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은총과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스리랑카 연쇄 폭탄 테러로 약 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